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7년 7개월 만에 정책 금리를 0.3%로 인하

□ 일본은행은 10월 31일 금융정책위원회에서 현행 기준금리를 0.5%에서 0.3%로 인하하기로 결정함.

- 2006년 7월에 사실상 제로 금리 정책을 포기한 일본은행은 2007년 2월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정책금리를 0.5%까지 인상하였지만,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급속한 엔고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7년 반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함.
- 금융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해 찬성 4명·반대 4명 동수였기 때문에 의장인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의 직권으로 금리인하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.
- 이에 앞서 미국 FRB가 10월 29일에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하고 ECB(유럽중앙은행)도 곧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해지면서, 일본 역시 미국 및 유럽과의 공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됨.

□ 일본은행은 이번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함.

- 11월 1일에 발표된 대기업·제조업 업무상황 판단 지수(경기관측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임)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일본 내 기업들의 경영악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.
- 자동차, 전자기기 등과 같은 대표적 수출 산업 또한 글로벌 시장의 침체와 엔고현상 지속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.
- 일본 정책당국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얼어붙은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변동금리형을 중심으로 모기지 금리를 낮추게 하는 한편,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이에 반해, 단지 0.2%p의 금리인하가 기대하는 경기부양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음.

(FujiSankei Business | 11/1,
아사히신문 10/31,
블룸버그 통신 10/31)